

학교탐방

죽왕초등학교

“생각의 뿌리가 깊은 어린이 육성”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터 ... 신학력향상 방안 등 5대 역점시책 추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위치한 죽왕초등학교(교장 김상훈)는 지난 1965년 개교해 제41회 졸업생까지 총 997명을 배출했다.



김상훈 교장

전교생이 40명

인 죽왕초교는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터’라는 학교상과 ‘생각의 뿌리가 깊은 어린이’라는 어린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행복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 기초·기본 학력이 튼튼한 어린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지킬 줄 아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삼고 있다.

김상훈 교장은 부임 이래 학교장의 명품화, 교직원 명품화, 교육 수요자 명품화, 교육과정 명품화, 시설·환경 명품화를 통해 명문·명품 학교 구현에 힘쓰고 있다.

죽왕초교의 첫번째 역점 교육시책은 신학력 향상 방안 추진이다. 독서 습관의 생

활화를 위한 독서교육, 방과후 개인별·수준별 학습을 위한 수학 맞춤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수학교육, 정부초청 해외 장학생 TaLk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역점시책으로는 학력향상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총제적 예방, 진단,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번째 역점시책으로는 봉사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2회 교외 봉사활동 실천하기, 연2회 봉사활동 발표회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실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네번째 역점시책은 생명보존교육의 실시다.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기초 안전교육 실시,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번째 역점시책으로는 한자 특색교육이다. 한자익히기를 통한 총체적 언어 능력 기르기라는 주제로 한자교재 및 국가수준 한자급수시험 응시료를 연 2회 무



죽왕초등학교 전경

료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학년도 급수시험에서 5급 4명, 6급 14명, 7급 26명, 8급 2명 등 모두 4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죽왕초교는 이밖에도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논술, 플루트, 한자, 바이올린, 원어민 영어, 컴퓨터, 풍물 등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학교실 지원, 급식비와 우유 전액 지원,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야영비 전액 지원, 한자 특색교육 무료지원 등 교육무료지원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죽왕초교는 학교 운동장 정원조성, 다목적실 신축,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죽왕초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방범대 및 여성의용소방대가 주4회 등교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죽왕면변영회에서 매년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동문회, 9회 동문회, 재고성군청동문회, 이장단협의회, 오호교회, 학부모회에서 매년 졸업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7>

고성팔경(高城八景)④ 화진포(花津浦) IV

화진포 일대의 역사안보전시관

아름다운 화진포는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지로 일제 강점기 무렵 외국인 휴양촌이 건설되었던 곳이다. 당시의 건축물 중 현존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15해방 이후에 ‘화진포의 성’ 북한 김일성 별장으로 휴전 이후에는 정권의 실세였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별장과 함께 부통령을 지냈던 이기붕 별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화진포의 성(城) = 화진포콘도 뒤쪽의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무렵인 1937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는 외국인 휴양촌을 화진포에 강제 이주시키면서 독일명 건축가 베버(H. Weber)가 1938년 2층을 건립하여 예비당으로 이용하였다.

해안절벽 위 송림 속에 우아하게 자리잡은 모습이 유럽(독일)의 성곽을 연상케 하는 돌집의 ‘화진포의 성(城)’으로 불렸는데 1948년 이후에는 북한이 귀빈휴양소로 운영하였으며 당시 김일성과 처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 등이 묵고 간적이 있어 지금까지 ‘김일성 별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화진포의 성은 당초 캐나다인 선교사 닥터 셔우드 홀(Sherwood Hall)의 별장이었으며 그의 저서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 의하면 한 장의 사진만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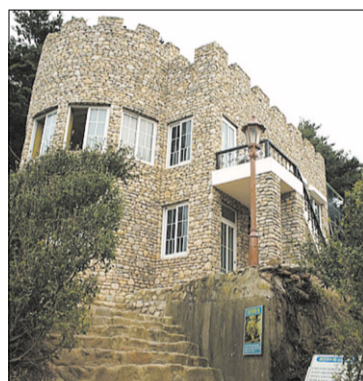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화진포의 성(城), 이기붕 부통령 별장,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뿐이다. 이 별장은 한국전쟁 당시 훼손된 건물을 1964년 육군에서 건물을 철거해 지상 1층으로 재건축했고, 1995년과 1999년에 전면적인 개·보수해장병들의 휴양 시설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 2004년 구 김일성별장을 철거하고 이듬해인 2005년 2월 총 6억 8,900만원(군비)을 들여 ‘화진포의 성’을 준공하고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기붕 부통령 별장 =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화진포 성(城)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기붕 부통령 별장은 1920년 선교사의 숙소로 건립되어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북한 간부 휴양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휴전 후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처 박마리아

가 개인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쇄되었으나, 1999년 7월 개보수하여 역사안보전시관으로 개수하여 관람객에게 전시하고 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과 화진포 기념관 = 호수 안쪽에 자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과 화진포 기념관 건물은 1954년에 단층건물(스라브 27평) 규모로 신축하여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건물을 방치하여 폐허로 철거되었던 것을 새로 지어 군 휴양소로 사용해 왔다.

그후 1997년 7월 육군에서는 현재의 위치에 본래의 모습대로 별장 건물을 복원하여 역사적 자료와 유품을 전시해 오다가, 2007년 2월에 고성군과 육군 복지단에서 본래의 별장 터에 세워진 본

건물을 새롭게 보수하고, 별장에 있던 일부 유품과 이화장(梨花莊)에서 역사적인 자료 53점을 추가로 기증받아 2007년 8월 7일 4개 전시실을 갖춘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으로 개관하고 일반에 개방하였다.

기념관에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등을 비롯해 한국전쟁 사진자료가 전시돼 있으며, 이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과 야외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원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